



HCF MAGAZINE

화성시문화재단 소식지



NEVERLAND SYNDROME

네버랜드 신드롬

VERDIGRIS

#따뜻한 #레트로 #추억 #개성

2023

Winter (겨울과 봄 사이) **Spring**

VOL.61



HCF MAGAZINE

2023
Winter (겨울과 봄 사이) Spring

VOL.61



NEVERLAND SYNDROME + VERDIGRIS

COVER STORY

순수함과 천진함으로 긍정의 기운을 잔뜩 머금은 네버랜드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 철없는 판타지라고 치부하는 순간, 상상은 허상이 된다. 분명히 존재하는 말랑말랑한 동심의 세계, 나만의 네버랜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민율, 나무의자 | 162x130.3cm, oil on canvas, 2022

작가노트 <나무의자> 작업은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잠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데서 시작되었다.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곳이지만 당신과 떠도는 공기만 있는 그곳에서 그때그때의 하늘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바람과 함께 천천히 흔들리길 바란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어도 좋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 외로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다.

06



06 **INTRO**

예술인의 땀방울을 담다

14



C The 담다 × 문화를 담다

12 **INCEPTION**

동심은 사라지지 않아
네버랜드 신드롬

14 **FOCUS**

공간을 채우는 예술
화성 곳곳에 싹트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

18 **INTERVIEW**

눈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을 기대해
'2023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팀 - 몽돌

24 **COLUMN**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미술관

28 **TALK**

어른들의 세상에
친진난만함을 더하다
네버랜드 신드롬

32 **LIVE**

<작가H 상점> 참여 작가
민율·오강·리나리

40



G The 가다 × 그곳을 가다

38 **WALK**

겨울철 간식 트럭
소소한 행복의 발견

40 **TREND**

따뜻한 독서, 참 좋다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나들이

44 **TICKET**

연말을 가득 채울
화성시문화재단 12월 기획공연

46 **DRAW**

소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공생연전

48 **TRAVEL**

지역민과 미군을 포용하는 문화거점
평택 안정리 예술인광장

54



D The 하다 × 동행하다

54 **HELLO**

시민미디어제작단 '미식화성'
안은정·하정현

58 **ARCHIVE**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깃든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62 **PEOPLE**

화성인의 대답
"당신의 동심은 안녕하십니까?"

66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문화 소식

72 **LETTER**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73 **PLACE**

배포처



HCF MAGAZINE 2023
겨울과 봄 사이 VOL.61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김신아
편집본부장 김미라
편집팀장 최윤정
기획 편집 차영은

디자인 더페이퍼(031-225-8199)
홈페이지 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적로 134
전화 031-8015-8112
팩스 031-8015-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NTRO

예술인의 땀방울을 담다

2023.12 Winter



1

아름다운 선율의 향연과
농익은 가락
감동을 주는 뜨거운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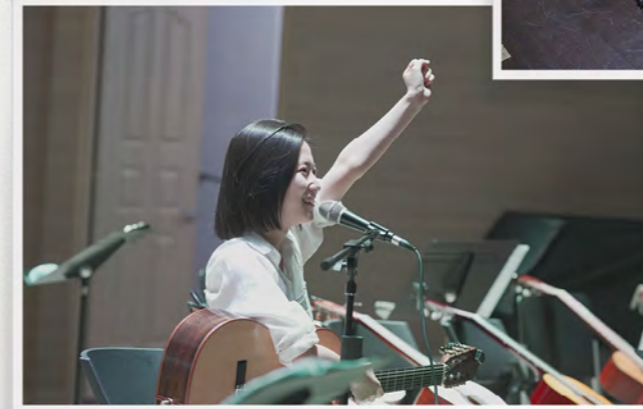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절실함으로
순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2



3

화성에 퍼지는
울-림



4

모두 하나 되는
어-울-림

- 1 2023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 블로우 아웃 <얼스 비트>
- 2 2023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 동탄유스오케스트라 <모차르트 내한 콘서트>
- 3 2023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 장하은 <기타로 위로를 연주하다 하은 & Live concert>
- 4 2023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 극단 슬래 <판소리 음악극 '어떤 왕 이야기'>





5

삶의 모습에서
건져 올린
다채로운 장면은
문화 다양성의
길을 안내했고

전시 공간에 걸린
매력적인 작품들은
우리의 시선을 한 발짝
내딛게 만들었다.



6



7



8

야자가로수 이야기

박운선 소설집

Good bye

뜨겁고 치열했던
2023년 화성의 문화예술

Thank you

우리에게 기쁨과 미소, 행복을 안겨준
화성시문화재단

- 5 2023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 임승균 개인전 <Seasons never last 展>
- 6 2023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 창문아트센터 단체전 <낮고 달고 쌓이고 展>
- 7 2023 화성예술지원 기획부문 성과공유 단체전 <뉴 본 아티스트 展>
- 8 2023 화성예술지원 선정작 - 박운선 단편소설집 <야자 가로수 이야기>

12 **INCEPTION**

동심은 사라지지 않아
네버랜드 신드롬

14 **FOCUS**

공간을 채우는 예술
화성 곳곳에 싹트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

18 **INTERVIEW**

눈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을 기대해
'2023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팀 - 몽돌

24 **COLUMN**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미술관

28 **TALK**

어른들의 세상에
천진난만함을 더하다
네버랜드 신드롬

32 **LIVE**

<작가H 상점> 참여 작가
민율·오강·리나리

Capture

The 담다 × 문화를 담다

INCEPTION

동심은 사라지지 않아
네버랜드 신드롬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곳
네버랜드에서 결국 우리는
성숙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조금은 나이 든 어린이들이다.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열어주는 동심,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이들에게는
매 순간 새로운 삶의 경이가 찾아올 것이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공원 근방에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이 생겨났다. 올해 새롭게 개장한 복합문화 상업시설인 동탄 라크몽 내에 위치한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이다.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은 1전시실과 2전시실로 구성되며, 지난 4월 1전시실에서 기획전시 <다시, 처음 보다>로 공간의 개관을 알렸다. <다시, 처음 보다>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전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로,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작업방식의 회화작품들을 새롭게 바라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1부에서는 김미경, 김원기, 김현중, 나혜옥 작가, 6월부터 7월까지 열린 2부에서는 김미자, 박석윤, 안유선, 오시수 작가가 참여했다. 다양한 소재로 자신만의 철학과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감상하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한 만큼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방문객 누구나 간단히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컬러링 및 판화 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했으며, 작가만의 예술세계를 일부 체험해볼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어 8월부터 11월까지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전시 <Dear My Dreamer>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를 넘어 유럽 미술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 남지은, 노혜영, 박형진, 이재윤이 참여했으며,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이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흥미롭고 신선한 영감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몽글몽글한 세상의 풍경, 초록이라는 자연의 세계, 아기자기한 소재와 색채, 위치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인 렌티큘러(lenticular) 작품 등 흥미롭게 공간과 작품을 구성했다. 상상력으로 맘껏 꾸며보는 컬러링 프로그램과 관람객이 자석을 붙여 함께 작품을 완성하고, 자신의 꿈을 적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해 재미를 더했다.

- 1 전시 <다시, 처음 보다>
- 2, 3 전시 <Dear My Dreamer>

FOCUS

공간을
채우는 예술

화성 곳곳에 싹트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

2023년 화성시 곳곳의 공간들이 예술로 가득 채워졌다. 동탄에 새로 생겨난 문화공간과 '2023 관내 유휴공간 활용 예술사업'의 일환으로 궁평리에서 진행된 기획전시부터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예술을 채워 사람들을 이끌었다. 또한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과 만났다. 한 해 동안 도시에 생기를 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글 차영은(경영지원팀)



바다 보고
기획전시 보고

•
궁평리어촌체험마을안내소



관내 유휴공간인 궁평리어촌체험마을 안내소에서는 올해 세 가지 기획전시를 선보였다. 전시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남부권 주민들을 위해 1층 공간을 발굴해 전시장으로 꾸민 것이다. 이 공간은 바다 풍경을 보기 위해, 바다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궁평항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미술관의 동물원>은 바다를 즐기기 좋은 계절인 여름에 열린 첫 번째 전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주제로 한 IKS(김선경), 이서미 작가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종이를 이용한 팝업, 일러스트, 설치 작품 등의 현대미술을 선보였으며 종이 인형을 만들고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종이접기 아저씨'로 유명한 김영만 작가가 진행한 프로그램 '미술관의 종이접기, 보고 즐기는 재미가 있는 '판타스틱 버블 체험'으로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연말에는 편안히 즐기 좋은 두 가지 전시가 진행됐다. 포근함이 느껴지는 전시 <좋은 꿈 꾸세요>는 꿈속 호텔을 방문한다는 콘셉트의 체험형 전시다. 관람객은 마치 호텔 로비와 같은 전시장 입구에서 체크인Check-in을 하듯 전시장으로 입장하게 된다. 현대 작가 노연이, 파울클레, 폴내시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나와 다른 이들의 내면과 작품세계를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됐다. 이어 '꿈속 세계의 방에서 미디어 작품을 통해 꿈을 꾸고 빛을 향해 빠져나온 후 자신의 꿈을 종이에 써 붙이며 다른 이들의 생각까지 공유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전시는 화성시의 첫인상과 풍경, 삶을 주제로 한 <내가 사는 도시>이다. 발전되어 가는 도시의 모습을 그린 김지은 작가의 작품들과 '실로 자연이 가진 초록색 싱그러움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하는 밈예스 프로젝트의 작품을 전시했다. 문화예술을 입혀 탈바꿈한 공간, 화성시 곳곳의 유휴 공간의 재탄생은 계속될 예정이다.



- 4 전시 <좋은 꿈 꾸세요>
- 5 전시 <미술관의 동물원>
- 6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화성, 문화로 공간을 잇다'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
**화성,
문화로 공간을 잇다**

재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화성, 문화로 공간을 잇다'를 진행했다. 본 사업은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거점 공간을 발굴하고 공간 운영자 및 문화 활동가들이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젝트로 카페, 공방, 갤러리, 미술극장 등 민간공간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모사업을 진행해 선정, 지원했다. 최종 선정된 10개소의 프로젝트는 만지작Lab도자공방 <나만의 도자화기(花器)에 꽃을 담다>, 커피공 <마음 드로잉 레시피(Recipe)>, 갤러리 문화아지트 <역사를 품은 전통 문화예술>, 차 마시는 뜰 화인규방 <생활문화, 전통으로 이어가다>, 나마네 <소리로 취향껏 잇다>, 갤러리원플 <들썹들썹 예술로 어울림>, 다가치공간 <다같이 다가치 문화 페스티벌>, 파미라운지 <모두의 라운지-안녕하세요. 여러분!>, 더퍼포머 씨어터 <미술극장에서 펼쳐지는 키즈 아트플레이>, 산들레 야영장 <자연에서 즐기는 예술체험 - 아트 인 포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를 매개로 지역 자원과 공간, 사람을 연결해 호평을 받았다. 재단은 앞으로도 문화공간 활성화 및 문화도시 조성,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夢 突

INTERVIEW

눈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을 기대해

‘2023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팀 - 몽돌

꿈 ‘몽’, 부딪칠 ‘돌’.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몽돌은 5인조 밴드다. 지난 6월 화성시문화재단이 주관한 뮤지션 발굴 경연대회 ‘2023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현장 경연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몽돌은 쾌활함과 유쾌함, 발랄함으로 가득한 청년이었다. 다섯 명의 아티스트는 인터뷰 시간 내내 자신들의 공간을 긍정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

글 배미진 사진 김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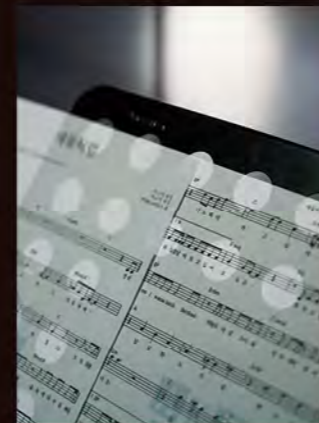
**무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공간**

아산과 천안 등지에서 공연 반주를 하던 무명의 세션 팀은 아티스트로서 꿈을 이루기 위해 2020년 7월에 밴드 활동을 시작했다. 무대 주변이 아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중앙에서 희망과 꿈, 도전을 노래하는 몽들의 이야기다. 이동희(드럼), 양광준(베이스), 장경천(키보드), 이홍균(보컬), 김태준(기타)으로 이뤄진 5인조 남성 그룹으로 현재까지 음원 6곡을 발표했다. 탄탄한 기본기와 실력을 기반으로 인디 음악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던 몽들은 2023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 이력을 추가했다.

구성원 모두 본업은 음악이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다른 직업을 겸업하고 있다. 바리스타, 회사원, 음악 강사 등 각자 치열하게 살며 밴드 활동을 영위한다. 지금은 정규 1집 발매를 위해 앨범 준비에 몰입해 녹음실과 연습실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껏 그래왔지만, 내년에 발표 예정인 정규앨범 또한 모든 곡을 직접 작사하고 있다. 몽들의 곡 대부분은 보컬 이홍균 씨가 썼다. 그는 일할 때 느낀 감정들, 퇴근길에 문득 떠오른 영감을 누아채 작곡한다.

“보통 한 사람이 곡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면 합주를 통해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곡을 완성해요. 이번에 준비 중인 앨범에는 꿈에 대한 응원과 도전, 새로운 메시지들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르의 경계가 없는 선물 상자라도 같은 앨범이 될 것 같아요.”

소속사가 없어서 음원 녹음과 발매, 홍보 등 모든 과정을 팀 스스로 해결한다. 양광준 씨는 가끔은 음악이 '운동' 같다고 말한다. 음악 덕에 즐겁고, 음악 탓에 힘들 때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 얻는 기쁨이 힘들보다 더 크기에 삶과 음악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몽들이다. 특히 김태준 씨는 팀 활동 자체가 삶의 동력이라고 말했고, 이홍균 씨는 관객과 눈을 맞추며 모든 역량을 쏟을 때 신이 난다며 무대에 선 모든 시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라고 했다.



**'2023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 레거**

올해로 6회를 맞는 전국 밴드 경연대회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에 참가한 몽들은 150대 1의 치열한 예선 심사를 치루고 최종 경연 진출 'TOP 8' 명단에 들었다. 지난 6월 10일 제주도 매바위 광장에서 펼쳐진 경연 무대에 올라 밴드의 역량을 모두 보여주었고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었다. 몽들은 그때의 순간을 회상하며 싱긋 미소 지었다.

“항상 무대에 설 땐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요. 'TOP 8'에 진출한 팀들의 면면이 화려했는데 그날은 유독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경연장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객석을 채워주셨는데 모든 계층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몽들의 음악이 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 늘 공모전에 성실히 참가했는데 우승은 처음이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역대 수상 팀들은 음원 발매와 각종 방송 활동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창작지원금, 서울뮤직위크 쇼케이스, 해외 진출 포트폴리오,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졌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경험을 선물 받았죠.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쌓아갈 커리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테고요. 라이징 스타를 찾아라 우승이 몽들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큰 영광이자 업적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시의 대표 축제인 'Monsoon Music Festival'에 '혁오 밴드'와 함께 몽들이 한국 대표 아티스트로 초대받아 공연을 펼쳤다.

“음악이라는 만국의 공통어를 통해서 모두 하나 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무대가 끝난 후 관중석에서 몽들을 외쳐주실 때 정말 짜릿했고요. 이번 해외 무대로 외국어 공부의 필요성도 절감했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몽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용감하고도 빛나는 예술가들이었다. 앞으로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밴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면 최선을 다해서 임할 계획이다. 리더 이동희 씨는 내년에 정규앨범을 발매해 새로운 곡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난해 발표한 곡 'Running'의 가사처럼 꿈을 향해 달려 나갈 다섯 남자의 2024년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속도를 올려

앞판 보고 달려 이제 세상은

내가 상상한 일이 이뤄지기를 ...

터질 듯한 이 심장을 느껴봐

눈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을 기대해!

.. ‘Running’ 가사 중



夢 突



기타 김태준
진정한 자아를 알아가는 과정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에요. 무대에 오르면 흥이 많은 동료와 방방 뛰게 되는데 음악을 하면서 점점 더 자신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도 좋은 영향이 되고요. 음악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드럼 이동희
음악,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밴드 활동을 하는 모든 순간, 지금 이 연습실마저 놀이터 같아요. 음악을 하는 시간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가 어린아이가 돼요. 팀원들과 합심해 음악이라는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사건들이 정말 재밌어요.



베이스 양광준
지치지 않는 꾸준함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통이 오지만, 꼭 해야 하는 필수 활동이잖아요. 음악도 운동과 같아요. 힘들어 있지만 음악을 하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져요. 올해는 몸들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키보드 장경천
삶의 동반자 음악, 매력 만점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음악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인생에 음악이 없었던 순간이 없었으니 삶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음악을 하면 탁했던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환기되며 치유도 되죠. 무대 공간에 우리의 소리가 울리고, 퍼진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보컬 이흥균
반복된 일상에 지친 나를 깨우다

제게 음악은 일탈이죠. 사실 반복되는 업무를 할 땐 스스로 죽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공연 무대에 서면 쌓인 피로가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COLUMN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미술관

예술가는 시대의 현상을 발견해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대중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는 문화예술의 역할이기도 하다. 인류는 기후 위기에 직면했고, 예술가들은 침묵하지 않고 재능을 발휘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예술의전당에서는 작가 10명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설치 및 미디어아트를 선보였다. 시각예술 기획자의 시선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는지 들어본다.

글 문새날(예술의전당 시각예술부 학예사)
사진 예술의전당 제공 참고자료 <영원의 시작 : ZERO> 도록



말로만 '환경'을 외치는 시대가 아니다

"학예사님, 이번 전시 주제는 탄소중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술의전당과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를 만들기 위해 모인 회의에서 나온 한전 담당자의 질문이었다. 두 공공기관이 만나 응당 '탄소중립'이라는 시의성 강한 주제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지만, 기획자로서는 굉장히 난감했다. 전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대한 폐기물이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전시를 위한 구조물들은 모두 탄소 배출을 통해 만들어지며, 보통 한 번의 전시 이후 폐기된다. 때문에 전시를 준비하며 동료들과 우스갯소리로 '탄소중립 전시를 하려면 전시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미술이 사회에 주는 영향과 역할이 있기에 폐기물이 다양으로 나오는 전시의 특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주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앞섰다. 미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제, 매체 등이 변화한다. 때로는 시대의 변화에 한 걸음 앞서가기도 한다. 인권, 인종, 종교, 전쟁 등 인간 사회의 여러 문제를 앞장서서 이야기하며 문제를 각인시키고, 때로는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화 이후 인간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시작되면서 '자연', '환경'이 점점 작품의 주제로 부각되었고, 최근 미술계

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았다. 미술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은 '환경'은 작품과 전시의 주제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더는 말로만 환경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전시가 열렸다. <영원의 시작 : ZERO>는 예술의전당과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로 10팀의 작가가 예술로 보여주는 탄소중립 전시이다. 전시는 처음 '영원의 시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했다. 이후 더 직관적인 단어를 더하기 위해 탄소중립, 넷 제로 Net Zero의 'ZERO'를 부제로 붙여 전시명을 확정 지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전시를 제작하는데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둔 점은 자원의 최소화였다.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해 전시 종료 후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최대한 줄이기로 하였다. 그렇게 기존 전시 구성에서 만들어진 언어들 위에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구성을 맞추어 기획이 시작되었다.

최소한의 구성, 재생과 지속가능성의 고민

전시 공간 디자인 업체가 섭외되었고 최소한의 전시 구성을 요청하였다. 재활용이 가능한 철재를 사용하여 전시장 가벽이 설치되었고,



1 이소요, 2022, 전시 전경 ©예술의전당
 2 고사리, 2022, 전시 전경 ©예술의전당
 3 장한나, 2022, 전시 전경 ©예술의전당
 4 부지현, 궁극공간, 2022, LED, 집어등, 모터, 포그 머신, 레이저, 가변크기 ©부지현



문새날
 예술의전당 시각예술부 학예사.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는 예술을 지향하며 <백희나 그림책>,
 <영원의 시작: ZERO>, <내맘쪽: 모두의
 그림책> 전시 기획에 참여하였다.



작품이 더 돋보이도록 형형색색 페인트로 칠해졌어야 할 벽면도 전시장 원형 모습 그대로 구축되었다. 철제 가벽은 여타 MDF 목재 합판 가벽과는 달리 벽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 자칫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참여 작가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했다. 보통의 경우 독립된 본인만의 공간을 선호하기 마련이지만 거의 대부분 흔쾌히 수긍해 주셨다. 또 몇몇의 가벽과 제작 좌대들은 그다음 이어지는 전시에 양도하여 공간을 재활용했다.

가벽 외 요소들에서 재생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했다. 전시장 내부에 들어갈 월 텍스트들은 최소한의 시트지만 사용했고, 작품 소개 글은 모두 천연 소재 광목 원단에 인쇄하여 조성했다. 또 전시장 외부에 거는 현수막도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으로 제작하였다. 폐기 이후 분해가 될 수 있는 소재임에도 그냥 버려지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전시가 종료된 이후에는 현수막 리사이클링 업체에 전달하였다.

이 밖에 체험 공간 등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테이블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도 더했다. 특히 고민이 많았던 것은 지류 인쇄물이었다.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버려지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전시 제작 시, 관람객들에게 자료 전달을 목적으로 만드는 리플릿과 전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도록은 필수불가결하게 만들어야 하는 품목이다. 여러 논의 끝에 리플릿의 경우 폐지를 재활용한 재생지에 인쇄하였고, 도록은 최소한의 수량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용지에 인쇄하였다. 소량 인쇄하긴 했지만 전시 종료 후 남은 여분의 리플릿을 보니 QR 혹은 디지털 간행물로 대체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시를 기획할 때 주제, 예산, 기간 등이 확정되면 이후 작가들을 통해 전시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작품 배치를 구성하여 서사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간다. 본 전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불편한 진실', '아동이 질어린 시간', '새로운 시작'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부터 앞으로 열어가야 하는 이상까지 순서대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섹션인 불편한 진실은 예술가의 시각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급한 현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때문에 탄소중립을 하지 않고 방치했으므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풀어내는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현 상황에 대한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고찰, 그리고 이를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설치 작품을 위주로 보여주었다. 두 번째 섹션인 아동이 가장 질어린 시간에서는 인구가 급증한 지구에서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발생한 현재의 기후 위기 상황들을 보여주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섹션의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며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왜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 마지막 섹션인 새로운 시작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느 지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대한 재인식, 서로의 관계를 보듬고 돌아보는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몇몇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전시에서 시사한 이야기를 풀어본다.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장한나 작가는 울산 바다에 방문했다가 신기한 물체를 발견한다. 바다에 버려진 스티로폼이 풍화작용을 거쳐

하나의 돌처럼 보인 것이다. 작가는 그 조형물에 '뉴 락 New Rock'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생태계에 스며든 뉴 락을 채집하고 연구하는 <뉴 락 연구 기록>을 작품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신 생태계>를 통해 뉴 락이 자연의 일부로 생태 공간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조 형태의 신 생태계 작업과 그 영상을 보여주며 질문을 던진다. 자연은 그 인공물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지만, 우리 또한 그 뉴 락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부지현 작가는 제주도 출신으로 고향 바다에서 영향을 받은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한 설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궁극공간>은 수명을 다해 더 이상 불을 밝히지 못하는 폐 집어등을 이용한 설치 작품으로 재탄생 되었다. 어둡게 조성된 공간 안에는 오르내리는 집어등과 함께 짙은 안개와 붉은빛이 몽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안개가 자욱이 낀 밤바다를 연상시킨다. 작가의 궁극 공간 안에서 관람객들은 조용히 머무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상에 잠기게 만들었다.

고사리 작가는 실제 농사를 지으며 경험한 자연의 순환 구조를 작품으로 풀어낸다. 이렇게 출품된 작품 <땅의 별>과 <해와 달>은 광목 천으로 거대하게 조성된 원형 공간에 절기에 따라 해와 달이 변화하고 반복되는 모습을 담았다. 또한 생의 주기를 다한 후 건조된 식물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공간 안에 매달려 있다. 작가가 의도한 자연의 요소들이 구현된 암실 공간 안에서 자연이 변화하고 반복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한다.

시대와 함께 성장한 예술, 변화의 원동력으로

이후 전시장은 루틴하게 흘러간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특히 코로나 상황이 종결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전시장은 활기를 띤다. 아이들 방학 시즌에 맞춰 블록버스터 전시가 개최되고, 전시는 관람객들을 바쁘게 맞을 준비를 하며 공간을 새롭게 단장한다.

다들 것 없어 보이는 미술관엔 이전과 다른 변화들이 생겼다. 최근 기획에 참여한 <백희나 그림책> 전시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모듈형 가벽과 철제 가벽을 사용하였다. 이제 전시 주제와 무관하게 앞선 전시의 시도들과 쓰임이 이어져야겠다는 의지의 표상일까. 전시 구성 요소들에 변화가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

환경을 보호하자고 사용하는 에코백과 텀블러가 과잉 생산되며 환경을 더욱 해치는 것처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전시 역시 이상과 실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시는 생각보다 재생 소재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작품에 온전히 몰입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작가와 관람객은 기꺼이 이해해 주었다. 전시가 끝나고 얼마가 지난 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어느 한 지점을 열어나가는데 함께 했음을 느끼게 된다. 이런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전시와 프로젝트들을 예술의 전당 외에 국립현대미술관과 아르코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등 여타 다른 기관들도 이어나가고 있다. 예술은 시대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를 가시화했고, 그것은 곧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예술의 행보가 발판이 되어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큰 울림이 되었으면 한다.

COOL!

▶ START

LOADING..

NEUTRAL LAND



©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포스트 프로덕션

TALK



어른들의
세상에
천진난만함을
더하다

네버랜드
신드롬

제임스 매튜 배리의 동화 《피터팬》 속 웬디는 피터팬과 함께 후크 선장을 물리친 뒤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그렇다고 해서 동심을 버린 건 아니다. 자라나면서도 매년 피터팬을 보기 위해 네버랜드로 향하니 말이다. 동화 밖 진짜 세상을 사는 어른들도 마찬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어린이(어른+어린이)'가 되어 천진난만함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

글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SYNDROME

철없는 덕후에서 자랑스러운 덕후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한다. '나도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 그렇게 성인이 된 요즘 어른들은 스스로를 '어른'이라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기성 사회가 짜 놓은 어른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나이보다 젊고 개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요즘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전국 각지의 극장에는 때아닌 '빨강 열풍'이 불었다. 하나같이 빨간색 농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양손에 빨간색 막대풍선까지 꼭 쥐 덕분에 더욱 강렬한 분위기를 사방으로 발산했는데, 이들의 행선지는 다름 아닌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상영관이었다. 마치 실제 생방송 경기를 응원하듯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빨간색 유니폼의 복산고를 열렬하게 응원한 이들의 정체는 '번듯하게 사회생활하는 평범한 30~40대'다. 1990년대 한창 연재 중이던 만화 <슬램

덩크>의 페이지를 정신없이 넘겼던 옛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스크린 속 복산고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열광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으며, 한 영화를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을 넘어 신장판 만화책은 물론 각종 굿즈까지 꼼꼼하게 사 모으는 <슬램덩크> '찐팬'으로 자리 잡았다.

만약 이런 일이 불과 10년 전에 똑같이 벌어졌다면 세상은 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십중팔구 혀를 차며 '오타쿠'라는 악평을 서슴없이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들에게는 '덕후'라는 한결 순화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긴 신조어가 따라붙는다. 아울러 이들의 N차 관람과 응원 상영회 참석, 굿즈 구매도 '쓸데없는 돈 낭비'에서 우리나라 소비 문화에 다양성을 더하는 '덕질'로 신분 상승했다. 이를 실행에 옮기는 당사자들 또한 스스로를 '나는 슬램덩크 덕후'라고 소개하고 때로는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슬램덩크>의 매력을 거리낌 없이 설파한다.

오늘에 머무르기를 택한 사람들

현재의 나이를 거부하며 복산고 선수들에게 열광하는 슬램덩크 덕후들의 원동력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면, 트로트 가수들을 향한 중년층의 덕질은 '현재를 인정하되 더 나이 들지 않으려는 머무름의 심리'에 가깝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 팬덤(Fandom)의 진원지이자 중심지는 아이돌 가수였지만, 오늘날에는 트로트 가수 팬덤의 영향력이 때때로 아이돌 가수 팬덤을 넘어서기도 한다. 중년층의 덕질이 보편화되면서 이들이 가진 지위와 재력이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위엄 있는 상사, 살림 솜씨 야무진 주부,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였던 이들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앞에서 나이의 통념과 일상의 책무를 훌러덩 벗어 던진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10대 팬들이 그러하듯 이들도 자신의 가수에게 '조공'을 하고, 각종 굿즈를 구매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팬 카페에 드나들고, 음악방송에서 응

원봉을 흔들며, 전국 투어 콘서트에 빠짐없이 출석한다. 나이가 이러한 덕질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한다.

한편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머무름이 관찰된다. 직장인의 영원한 목표였던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적성과 이에 따른 자기계발이 직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직책 반납을 뒤처짐으로 여겼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의식의 흐름이다.

일상과 재미를 접붙인다

무엇보다도 요즘 어른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아이처럼 재미있게 놀고 싶어 한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끈 포켓몬빵 따부따부실 모으기의 시작에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스티커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재미와 희열을 느낀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포켓몬 캐릭터와의 접점을 늘리는 일이며, 사람들은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올 초 서울의 한 호텔은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한 객실 패키지를 출시했는데 테마룸 1박 투숙, 포켓몬 한정판 어머니티 증정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빵에서 나오는 작은 스티커가 굿즈 모으는 재미, 여러 방법으로 캐릭터를 즐기는 기쁨으로 연결된 셈이다. 이른바 '신사 스포츠'라 불리며 비교적 진지한 운동으로 분류됐던 골프도 재미를 추구하는 어린이들 앞에서는 명랑한 운동으로 변화한다. 이들은 자세 교정과 근력 증강을 통한 비거리 늘리기와 타수 줄이기 대신 필드의 청량한 분위기와 그곳에서의 산책 같은 이동, 동행한 이들과의 담소와 추억에 집중한다. 승부 대신 재미를 택한 덕분에

골프는 명랑해질 수 있었으며, 이른바 '명랑골프'는 11월 현재 동명의 해시태그를 붙인 SNS 게시물이 60만 개를 넘어섰을 정도로 수많은 '골린이(골프+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어린이들은 자칫 추레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재미로 반전시킨다. 코로나19,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되도록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직장에 도시락 싸 가기, 하루 지출 0원 만들기, 걷기 운동으로 교통비 줄이기 등 나름대로의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일종의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지갑을 닫는다. 이것이 바로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무지출 챌린지'다. 돈 아끼기에 '챌린지'라는 재미있는 형식이 붙은 이상, 절약은 이들에게 궁상맞은 일이 아니라 지출을 즐기면서 소소한 재미까지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놀이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재미에 '진심'인



강진우
객관적인 정보와 색다른
시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사와 문화 칼럼을
쓴다.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현안과
분야에 몰입한다.

NEVERLAND

SYNDROME



1 송가인을 응원하는 팬클럽
©송가인 인스타그램
2 호텔 서울드래곤시티가 포켓몬
코리아와 협업해 조성한 포켓몬스터
테마방 ©서울드래곤시티

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린이들이 만들어 갈 '다이내믹 코리아'

돌아감, 머무름, 놀기 등 지금껏 살피본 어린이의 세 유형은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말로 통합할 수 있다. 동화 《피터팬》의 주요 배경인 네버랜드에 간 아이들은 늙지 않는다. 이를 요즘 나이 들기 거부하는 어른들의 경향성에 빗대어 만든 신조어이자 사회적 현상이다. 앞서 살피본 것처럼 '사회의 유년화'는 특정한 일부 집단의 취향이 아닌, 남녀노소를 불문한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이자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네버랜드 신드롬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대수명 증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환갑잔치를 챙기는 분위기

였지만, 지금은 거의 행기지 않는다. 예전에는 환갑까지 살면 장수한 것으로 간주해 잔치를 벌인 반면, 오늘날에는 특별한 질병이나 사고가 없다면 누구나 환갑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 수명의 증가는 곧 청춘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던 어른의 전형적인 틀을 빠르게 허물어트리고 있다. 이제는 10~30대는 물론 60~70대도 청춘을 부르짖는다. 이처럼 어른에 대한 정의가 혼란을 겪고 있기에, 젊음과 어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회의 유년화가 성인의 미성숙함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우리 사회에 역동성과 개성을 부여하는 데 일조했다.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힘든 일들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가짐에 배움과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지식과 지혜를 잘 버무린다면, 네버랜드 신드롬은 우리 사회에 역동성을 더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LIVE

즐거운 전시 관람 + 작품 구매 경험까지

<작가 H 상점> 참여 작가
민율·오킹·리나리



화성시문화재단은 10월 31일~12월 10일 동탄아트스페이스에서 중견작가 기획전 <작가H 상점>을 열었다. 작가 개인의 정체성과 입지를 다지는 시간이자, 시민은 작품을 구매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다. 이번 전시는 화성에 작업실을 두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율, 오킹, 리나리 작가가 참여했으며 유화와 일러스트,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이들을 만나 기획전 참여 소감과 함께 작품 세계를 들어봤다.

글 편집실 사진 김주원

자기 소개와 함께

전시 주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민율 파인 아트(Fine Art)와 유화, 설치 작품,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민율입니다. '나무의자', '상상씨앗 이야기', '기억하다' 등 주로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나무의자' 작품을 걸었어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편안한 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데서 '나무의자' 작업이 시작되었죠.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 끝 작은 의자를 보며 여유와 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연말이라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올 한 해도 수고했다고 말이죠.

오킹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래픽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화 그림작가이기도 한데 이야기를 기반으로 연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전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할배와 나'를 중심으로 사람과 강아지의 이야기가 사계절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반려견까지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잖아요. 숲에 사는 할아버지가 강아지에게 아이 대하듯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고, 돌봄으로서 느끼는 행복 이상의 가치들을 이야기로 담고 싶었습니다.

민율



민율, 나무의자 162x112cm, oil on canvas, 2018

리나리 컬러리스트이자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디지털 아티스트입니다. NFT 스토리를 구성하고, 아트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한 염려를 북극곰 '폴라'의 타임 리프(Time Leap) 여행을 통해 풀어갑니다. 폴라는 환경을 보살피면 북극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요. 작품을 통해 희망과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 아래서 각각의 그림을 모으면 이야기가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영감은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민율 경험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재를 채집하죠. '나무의자' 시리즈도 우연히 바라본 나무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이를테면 몇 년이 지나도 신경 쓰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 책장의 인형, 깨진 그릇. 이 나간 접시처럼 주변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요. 내년에도 또 다른 시리즈를 발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킴 인간의 다양한 군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저마다 치열하게 사는 삶을 보면서 인생 공부도 하고요 (웃음) 또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곳에서 본 풍경들이 더해져서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내년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대도시의 풍경을 기반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 전시도 숲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들인데, 도시도 거대한 빌딩이 모인 하나의 숲이고 그 속의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자 시점에서 담고 싶어요.

리나리 평소에 작은 감동과 반짝임에서 떠오르는 짧은 문장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메인 프로젝트인 폴라베어 이야기는 제 아이를 보며 떠올렸고,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것도 아이입니다. 출산을 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코로나 시대를 맞았었기에 더욱 환경과 지구 그리고 아이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 걱정과 관심이 컸거든요. 그 마음을 담아 만들게 된 캐릭터가 엄마 북극곰 폴라였어요.

리나리,
A Night with
An Aurora
40x40cm,
Digital art printing
on Acryl, 2023



화성시문화재단의 기획전시로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민율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연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작가 생활을 하면서 '중견'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신진'이나 '원로'보다 적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작가로서 관리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좋았어요. 또 중견이 되니 작품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오킴 제가 사는 곳에서 전시를 하게 되고 시민들에게 작품을 알리는 기회가 만들어져 기뻐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디지털아트, 일러스트와 회화를 함께 소개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것도 또한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감 있는 회화와 함께 어린 연령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캐릭터 그림으로 관람객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리나리 새롭게 시도한 것들이 생겼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번에는 이런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출산 후 경력 이 끊어지며 지금의 일들은 새로운 도전을 담은 시도인데요, 이렇게 기획전시를 통해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꽤 괜찮은 방향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가님들의 작품은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게 돼요. 자신만의 동심 세계가 있나요?

민율 제 작업물 중 '상상씨앗' 시리즈는 상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른들은 어린 시절에 했던 상상이 유치하고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을 하죠. 이 자체가 상상력을 잃게 만들어요. 이 시리즈의 메시지는 어린아이의 상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조금 이기적이고 각박하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 안의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킴 작품 속 할아버지와 강아지는 제 모습을 대입해 그린 부분도 있어요. 어른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강아지도 제 모습이고,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고 싶은 할아버지 또한 사실 저예요. 숲속에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죠. 저는 어른이라고 하지만 실은 어른의 껍데기를 안고 살아요. 일기에도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내면의 아이를 잘 다루고, 오늘을 잘 사는 게 목표라고 적는걸요.

리나리 제 안의 동심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작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취미 생활로 즐거움을 찾았다면, 지금은 이 동심이 아이와 연결되고 공유되기에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이 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애착 인형이 커다란 흰 곰 인형이었어요. 지금은 제 아이의 애착 인형이기도 하고 북극곰 폴라의 캐릭터 모티브이기도 하죠.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인형을 끌어안고 자면서 제 악몽을 막아줄 거라고 믿었고, 지금은 그 친구가 우리 꼬마의 밤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민율 내년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작업실을 제공해 주셔서 한 달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받은 영감을 기반으로 작품을 만들어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기대돼요.

오킴 제가 '화성에서 작업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오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싶어요. 이번 전시를 발판으로 삼아서 단단하게 입지를 다질 생각입니다.

오킴,
우리의 크리스마스
30x42cm,
digital drawing,
2023



오킴



리나리 현재 메인 프로젝트인 '마스터 폴라 베어와 북극 친구들' 캐릭터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캐릭터를 더 다양한 연령층에게 선보일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해요. NFT나 시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관과 스토리텔링 강인도 하고 있기에 전문 분야에 대한 활동을 쪽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친환경 재료들을 활용하거나,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상품과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들과의 협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에 대한 소감을

민율 작가님이 대표로 말씀해주세요.

민율 8년째 병점에서 작업 중인데 지역 작가님들을 만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서 작가님을 만나니 좋더라고요.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했죠. 이 전시는 참여 작가들에게 주어진 커다란 선물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38 WALK

겨울철 간식 트럭
소소한 행복의 발견

40 TREND

따뜻한 독서, 참 좋다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나들이

44 TICKET

연말을 가득 채울
화성시문화재단 12월 기획공연

46 DRAW

소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공생염전

48 TRAVEL

지역민과 미군을 포용하는 문화거점
평택 안정리 예술인광장

그렇게 사소하고 시시한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걸 배웠다.

- 김예란, [바깥은 여름]中

손에 땀 흘리고 페이지를 넘기는 경험 자체가
귀한 시대에 책의 질감, 무게감, 촉감,
미스틱케이는 소리 같은 것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집안살림 높은 예제는 존재만으로
소중하니까.

Go to

The 가다 × 그곳을 가다

WALK

겨울철 간식 트럭

소소한 행복의 발견



겨울철 골목길에서 파는 간식에는 따끈한 낭만이 깃들여 있다. 가까운 사람들과 나눠 먹는 정다운 맛, 투박한 비닐봉지에 가득 담긴 정성은 모두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울겨울 화성의 골목에서 마주친 따뜻한 길거리 간식을 보고 설렘을 느끼는 이유다.

글 이미나(2023 《화분》 시민 에디터)



“
붕어빵 봉투 하나를 전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추억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시절 음식

아파트 단지 앞에 서는 트럭들이 있다. 타코야끼, 곱창, 화덕피자, 치킨 등 우리를 졸 서게 만드는 트럭들이 동탄 아파트 단지 앞과 화성 지역의 골목골목마다 세워져 행인들을 유혹한다. 겨울이 되면 호떡과 물오랭, 붕어빵 트럭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기 장소가 된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온기를 본다면 아무리 추워도 줄을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차를 돌린 후 발을 동동거리면서 긴 줄 끝에 합류한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그리며 매서운 바람에 몸을 좌우로 흔들어가며 추위를 이겨낸다.

기름으로 달구어진 판에 쫄쫄한 밀가루 반죽을 툯 떼어 무심한 듯 눌러주고 현란한 뒤집기 기술을 펼치는 아주머니의 손놀림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내 차례가 되어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만 보고 있어도, 호떡 기름 냄새만으로도 '행복 벌거' 있다. 이런 게 행복이지' 하는 힘 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솟구치기도 한다. 혹시 현금이 없을 땐 계좌이체로 하면 되니, 일단 줄은 서고 보자. 고민하다 차례만 늦어진다.

우리는 왜 이토록 호떡과 붕어빵을 파는 노점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일까? 어릴 적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 때문이 아닐까. 아빠, 엄마와 함께 나누어 먹던 붕어빵, 호떡은 그 시절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옛날에는 달콤한 군고구마와 군밤도 있었는데 신도시에서는 장작을 넣어 고구마를 굽는 드럼통을 구경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나마 호떡과 붕어빵이 남아있기에 옛 기억을 추억할 수 있다. 부모가 된 우리가 어릴 적 받았던 사랑을 아이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에 호떡, 붕어빵 노점이 있는 것을 보면 지체하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 나간다. 간식 봉지를 받아든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붕어빵 한 봉지의 온기,

겨울의 진풍경

부모가 되어보니 내가 좋았던 기억, 가족들과 함께 사랑했던 기억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춥고 귀찮지만 발을 동동거리며 따뜻한 간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은 늘 설렌다. 간식 봉지가 오지도 모른 채 집에서 놓고 있을 아이들을 떠올리고, 실컷 먹으라고 인심 써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이 마음은 두 배의 행복으로 돌아온다. 간식을 받고 좋아하던 아이에서 어느새 부모가 된 나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가족이 생긴 후 소소한 행복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진풍경을 환대하는 것이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주는 차가운 공기, 그 추위를 견디고 얻은 호떡 봉지, 붕어빵 봉투 하나로 전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말과 표현보다 더한 사랑을 주는 방법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한 봉지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알기에 밝은 미소와 고마움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겨울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누군가에게 호떡 한 봉지, 붕어빵 한 봉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동네에도 따끈하고 달콤한 사랑의 표현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이제 막 시작된 겨울의 시작과 겨울의 끝에서.



TREND

따뜻한 독서, 참 좋다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 나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에 따뜻한 집에만 꼭 박혀 있고 싶은 계절이다. 웅크려있지 말고 화성시 곳곳에 있는 도서관 나들이는 어떨까? 최근에 개관한 쾌적한 시설의 도서관부터 여유로운 쉼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까지, 각각 특색과 주제가 뚜렷한 도서관 탐방으로 올겨울 마음의 양식을 가득 쌓아보자.

글 차영은(경영지원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초록 풍경 왕배푸른숲도서관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2길 102

운영시간 어린이자료실·종합자료실
평일 9:00~22:00
주말 9:00~18:00
※ 휴관일 매월 두 번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재단 창립기념일
(12월 23일)

문의 031-372-4435

'북 카페야? 도서관이야?' 생각하게 되는 이곳, 왕배푸른숲도서관이다. 동탄2신도시 왕배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쾌적하면서도 자연의 초록과 책의 조화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2021년 4월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도심 속 지식의 숲'을 콘셉트로 공간을 구성했으며, 전국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물을 인증받았다. 이곳은 도서관 건립 단계부터 명칭 공모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개관 직후부터 많은 시민이 방문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미디어'와 '환경' 특화 도서관답게 500종의 오디오북, 전자신문, 태블릿 PC 대여 시스템 등 다양한 미디어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공간은 1층의 힐링라운지와 3층의 옥상 쉼터다. 힐링라운지는 탁 트이고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옥상 쉼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이용할 수 있어 한겨울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기분 전환하기 좋은 최적의 공간으로 '옥상 달빛 극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자료실에는 비교적 높이가 낮은 서가들이 있어 아이들도 책을 고르기가 편리하다. 유아자료실에는 넉넉한 유모차 보관대에 쾌적한 수유 공간, 유아 화장실까지 마련돼 있어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2

무한한 상상력이 샘솟는 공간
달빛나래어린이도서관

주소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60번길 15(물빛공원 내)

운영시간 유아·어린이자료실
평일·주말 9:00~18:00
※ 휴관일: 매월 첫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재단 창립기념일 (12월 23일)

문의 031-273-8878

2023년 8월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하여 지난 10월 정식 개관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규 도서관이 있다. 바로 반월동에 위치한 달빛나래어린이도서관이다. 달빛나래라는 명칭은 화성시가 지난 5월 도서관 이용자와 반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아 후보를 추린 후, 7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투표 결과 선정된 이름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름과 어울리는 '우주' 특화 도서관인 이곳은 들어서자마자 우주 터널로 들어서는 것처럼 서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터널 서가를 지나 안쪽에는 우리가 '우주' 하면 떠올리게 되는 행성 오브제들을 감각적으로 배치해 우주선 내부에 탑승한 듯한 느낌을 주는 행성라운지가 있다. 어린이를 위한 특화 도서관답게 유아자료실은 천장에 달린 행성 조명과 벽면의 별자리들이 빛나고 마치 우주 모험이 펼쳐질 것 같은 반짝이는 타일 벽화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무궁무진한 독서 세계를 탐험하며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쑥쑥 자라날 것만 같은 공간이다.



3

여유롭게 즐기는 독서 한 모금
태안도서관

주소 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19

운영시간 어린이·전자정보자료실
평일·주말 9:00~18:00
일반자료실
평일 9:00~22:00
주말 9:00~18:00
일반·학생열람실
평일·주말 7:00~24:00
장난감도서관
평일 화~토요일 9:00~18:00
※ 휴관일: 매월 두 번째 월요일, 법정공휴일, 재단 창립기념일 (12월 23일)

문의 031-223-4764

여유로운 독서 시간을 즐기고 싶다면 태안도서관을 방문해보자. 1998년에 개관한 태안도서관은 2018년에 신축 이전해 새롭게 태어나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간이다. 태안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널찍한 계단형 독서 공간은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다. 각자 편안한 자세로 책을 볼 수 있도록 마루로 되어 있고, 한쪽 벽은 공유 서가로 조성돼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공유 서가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 책을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기증 받아 공유하는 도서 나눔 공간이다. 노노카페는 화성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주차 공간이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며,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과 장난감도서관이 있어 아이들과 방문하기 좋다. 특히 조선시대 정조의 효심이 깃든 용건릉과 위치가 가까워 태안도서관의 특화 주제는 '정조'이다. 주제에 맞는 역사·문화 강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문화교실 등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문화교실 프로그램 정보 및 예약은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TICKET

연말을 가득 채울
화성시문화재단
12월
기획공연

올해 화성시문화재단은 다채로운 시리즈의 기획공연으로 시민과 함께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새 연말이 성큼 다가와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다.
재단은 12월 기획공연으로 연극, 국악, 발레의 작품을 선보이며 연말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2024년을 맞이하기 전, 소중한 사람과 함께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글 황용진(공연예술팀)



수업은 @ 뽕뿌리



매향리에 새겨진 한 가족의 삶
연극 ON Stage : <뽕뿌리>

화성시 매향리의 동네 이름 속에는 불발탄으로 인한 매캐한 탄피 냄새가 짙게 배어있다. 이곳은 하루 8시간 이상, 매일 600회에 달하는 미군의 폭격 훈련으로 굉음이 끊이지 않으며 54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춘매'의 가족은 나고 자란 터에서의 일상을 이어가려 하지만 한순간에 쏟아지는 포탄은 평범한 삶을 한순간에 삼켜버린다. 일상을 처절하게 지켜내려 했던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매향리에 새겨진 폭격의 생채기를 직시하고 어루만진다. 아픔과 전쟁, 이어지는 고통, 국가의 폭력 그리고 매향리의 삶을 연극 <뽕뿌리>로 만나보자.

🕒 일시 2023. 12. 16(토) 17:00 📍 장소 누리아트홀 🎫 가격 전석 2만 원 🎟 대상 만 13세 이상 관람가



지금,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
전통 ON Stage : <신진국악: 고영열&서도밴드>

공연예술계의 최신 경향을 소개하는 ON Stage의 무대에 고영열과 서도밴드가 찾아온다. 고영열은 세련된 소리와 깊은 감성으로 우리에게 판소리를 친숙하게 알린다. '피아노 병창'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그는 작사, 작곡, 연주의 뛰어난 실력으로 타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국악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서도밴드는 JTBC 풍류대장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대중에게 '조선팝 창시자'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들은 국악의 특징적인 서사를 담아낸 가사와 대중음악의 멜로디를 섞어 밴드만의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 일시 2023. 12. 17(일) 17:00 📍 장소 반석아트홀 🎫 가격 전석 3만 원 🎟 대상 만 7세 이상 관람가



크리스마스에 즐기는 낭만
Youngster : <별들의 호두까기 이야기>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차이콥스키로 변신한 카운터 테너 '루이스 초이'와 국내 최고 수준의 발레 무용수들이 펼치는 이번 공연은 7명의 클래식 앙상블이 들려주는 생생한 음악을 비롯해 화려한 영상까지 곁들여져 아이의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든다. 행진곡과 꽃의 왈츠, 사탕요정의 춤과 같이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을 만한 주옥같은 음악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 일시 2023. 12. 23(토) 15:00 📍 장소 반석아트홀 🎫 가격 전석 2만 원 🎟 대상 만 5세 이상 관람가

* 상기 공연 일정 및 운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공연 정보 문의 1588-5234

DRAW

소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공생염전

바닷물과 햇빛, 바람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소금. 맛의 기본이자 인류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며 염부들의 땀으로 빚어진 것이라 더욱 가치가 높다. 한겨울의 설경처럼, 하얀 소금꽃이 핀 공생염전의 풍경을 어반스케치로 담아본다.

글 편집실 일러스트 김예슬

실향민이 조성한 소금밭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에는 공생염전이 있다. 한국전쟁이 나면서 황해도, 함경도, 철원 등에서 많은 피란민이 매화리에 내려왔다. 한순간에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은 생계가 막막했다. 1953년 피란민들은 함께 돌을 쌓아 울렸고 수년 후 제방을 완성했다. 제방을 쌓은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소금판을 분배하고 함께 삶의 터전을 일군 이들은 더불어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공생염전이라고 이름 붙였다.

염부의 땀방울로 만드는 소금꽃

공생염전의 천일염은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명품 소금이다. 청정 무공해의 바닷물을 농축해 염도를 높인 후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까만 옹기판 바닥 위로 생성되는 작은 소금 알갱이는 힘찬 대패질 몇 번에 수북이 쌓인다. 염전에 활짝 핀 소금꽃을 성실히 거둬들이는 염부들의 묵묵함이 소금에 녹여져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



공생염전

주소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759-12

내손으로 완성하는
공생염전
《화분》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면 공생염전
스케치가 있습니다

TRAVEL

지역민과 미군을
포용하는 문화거점

평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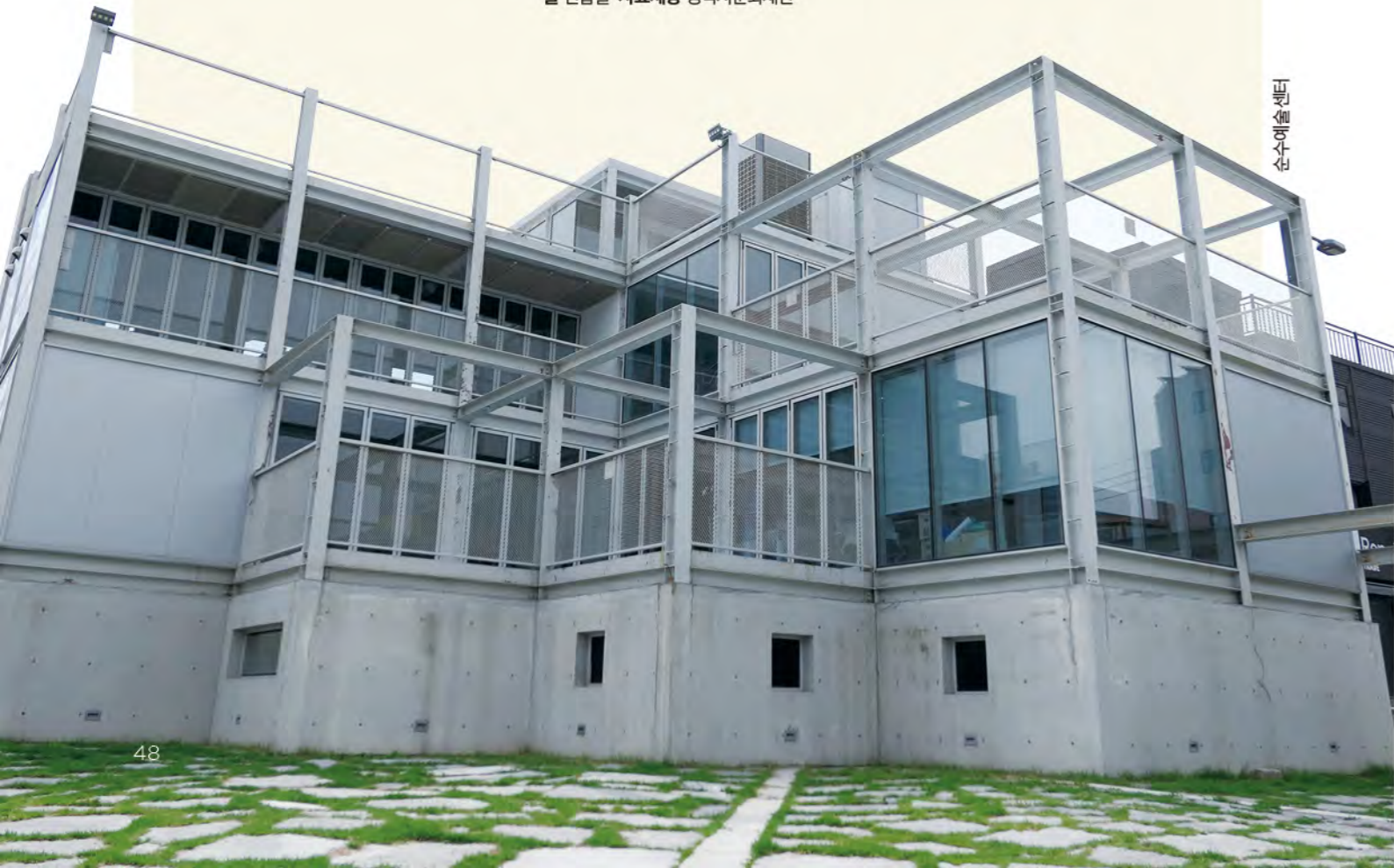
안정리

*

예술인광장

해방과 한국전쟁, 미군 기지촌이 주둔했던 안정리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 역사를 품은 곳이다. 2020년 지역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포용하는 안정리 예술인광장이 개관했다. 전시와 공연, 교육,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이자 평택시의 대표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글 편집실 자료제공 평택시문화재단



안정리 예술인광장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열린 공간

안정리 예술인광장(이하 광장)은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와 맞닿은 안정 로데오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캠프 험프리스는 지난 2004년에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협정에 의해 세계 최대의 미군 해외기지로 떠오른 곳이고 안정 로데오거리는 인근의 유일한 상권으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문화예술 공간이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했다. 평택시민과 안정리 지역 상인, 전문가와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공간인 안정리 예술인광장이 탄생하게 됐다.

광장의 주요 건물들은 공작여관, 현대안경점 등 기존에 위치하던 건물의 뼈대를 남기고 형태를 새롭게 재구성한 도시재생 사례다. 이들 건물은 전시, 공연, 문화, 편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전시공간을 통해 작가들의 기획전시, 야외공연장과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5개의 강의실과 조리강의실이 마련돼 있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공연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왔다.

광장의 아이덴티티 '길마뜨락'은 공간이 위치한 행정구역인 안정리의 옛 명칭 '길마와 정원의 순우리말인 '뜨락'이 만나 탄생했다. 길마뜨락은 광장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자 다양한 형태의 부가 콘텐츠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활용되며 광장이 갖는 상징성을 더하고 있다.

- 1 건물 외벽에 선보인 지역작가 협업 작품
- 2 플라마켓





공간에 문화를 꽃피우는 입주작가

평택시문화재단은 매년 초 입주작가들을 모집한다. 광장 내 건물에 상주하며 예술작업을 진행하고 연말에 그 결과물을 선보이며 유망한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입주작가들의 작업 모습과 작품 세계, 인터뷰 등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전시장 내부,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여 더 많은 곳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입주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은 개방형 모듈 건축물인 오픈큐브다. 이곳에서 개성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오픈큐브는 레지던시 공간으로 광장만의 독특한 문화공간이다. 폴딩도어로 구분 지어 양쪽에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은 길을 지나면서 작가의 작업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민이 예술에 관심을 가지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선발된 입주작가들은 한 해 동안 머물면서 지역의 특색이 묻어난 작품을 만들었고 연말에 광장 내 갤러리에서 결과전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한국화, 캐리커처, 설치작품, 회화작품, 사진작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전시를 마친 후에는 도록 인쇄물 및 E-BOOK을 제작해서 작품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평론가의 원고를 수록하여 그 가치를 높였다. 입주작가들이 매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결과물은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광장에 자리 잡고 시민들과 호흡하며 안정리의 문화지형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단은 지역민을 위한 강좌 운영 등 생활문화 업무와 축제, 공연, 전시 등을 기획하는 등 운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단은 공간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만드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 지역주민과 미군 가족, 다문화 주민들의 소통에도 노력하고 있다.

- 3 시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박정우 작가의 조소 체험
- 4 작가 입주공간 '오픈 큐브'

#공연

광장은 안정리 로데오 상권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지역민과 방문객, 미군들의 접근성이 좋다. 광장을 중심으로 사방이 열린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돼 공연예술 개최를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무대가 필요한 지역 예술인들에게 장소를 대여하며 지역 문화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안정리 예술인광장 기획공연과 마토에 술제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 행사를 연계해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큰 만족을 끌어냈으며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더했다.



더 스포링 시즌:아트&플레이 페스타

#전시

기존 건물의 골격을 드러내고 외벽과 유리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전시장은 3개의 실내갤러리와 5개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다양한 작품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시야가 개방된 공간으로서 전 시작품과 지역의 풍경을 연결하며 지역의 예술인들과 입주작가들을 위한 전시, 작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사

광장은 지역민들에게 친숙한 추억의 장소를 새롭게 만든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가깝고 즐거운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시설을 갖춰 대형 행사부터 시민 참여형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장소로 주목받는다.



더 스포링 시즌:아트&플레이 페스타



54 HELLO

시민미디어제작단 '미식화성'
안은정·하정현

58 ARCHIVE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깃든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62 PEOPLE

화성인의 대답
"당신의 동심은 안녕하신가요?"

66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문화 소식

72 LETTER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73 PLACE

배포처

Doing

The 하다 × 동행하다

HELLO

화성인이 전하는 슬기로운 미식 생활

시민미디어제작단 '미식화성'
안은정·하정현

청아한 목소리로 다양한 화성의 먹거리를 소개하는 팀이 있다. 바로 화성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민미디어제작단'의 '미식화성' 팀이다.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화성 로컬푸드 이야기를 라디오 콘텐츠로 선보여 지난 10월에 열린 제5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 전하고 싶은 지역의 이야기가 많다는 미식화성 팀을 만났다.

글 편집실 사진 김주원



올바른 먹거리의 중요성 알리고 싶어

미식화성의 태동은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이 만든 독서모임이었다. 토론을 통해 책 이야기를 나누던 구성원들은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자 2022년 8월에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올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과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청취자와 공감대를 쌓고자 했다.

모두에게 활짝 열린 화성시미디어센터

팀은 처음에 집, 교습소, 동아리 공간 등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녹음을 했다. 녹음실을 찾느라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한다. 올봄부터 화성시미디어센터에서 공간 지원과 교육지원을 받게 돼 전문 장비와 체계적인 시스템, 전문가의 조언을 기반으로 화성의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하정현 · 처음 시작할 때 팀명은 '미식독서'였어요. 녹음을 시작하면서 마을 라디오답게 화성의 먹거리와 볼거리,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 등 다양한 화성의 이야기를 다뤄보자는 의미에서 '미식화성'으로 바꿨죠. 화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가 다 알려주겠다는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구성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닉네임을 지어 편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한다. 김정민(주전자), 이규희(커피), 하정현(별), 안은정(클라라), 이진영(국자), 제비가나(참깨) 씨다. 이들의 본업은 식생활 강사, 푸드테라피스트, 마을 활동가, 건축설계 프리랜서, 독서논술지도사 등 면면이 다채롭고 화려하다.



안은정 · 장소마다 녹음 환경이 달라지니 장비를 구매해야 할지 고민되더군요. 만만치 않은 비용에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마침 화성시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미디어 활동가 양성과정' 사업을 알게 됐고, 성실하고 꾸준한 활동을 인정받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만들기 위해 기획하는 것부터 구성, 녹음, 프로그램 편집 기술까지 차근차근 배웠어요.



하정현 · 마이크 잡는 법, 발음하는 법 등을 교육받으니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소리가 균일하게 녹음되니 콘텐츠의 질도 확 높아졌죠. 이제는 팀원 모두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서 혼자서도 거뜬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이런 공간을 시민이 무료로 마음껏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화성 대표
마을 미디어가
목표**

미식화성은 화성시미디어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 하반기에 많은 성과를 냈다. 지난 10월에 OBS 경인방송에 게스트로 초대되었고 성남미디어센터의 시민라디오제작단 '라울림' 팀과 협업해 '화성남 talk' 공동 라디오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 성과물은 제5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에서 신인상(경기도지사상)을 안겼다.



안은정 · 처음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안전한 먹거리와 탄소중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하자는 소박한 바람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행복합니다.

매회 지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팀원 모두 화성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화성의 농촌과 어촌의 매력을 발견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특산품과 체험도 소개하면서 화성을 알아나간다.



하정현 · 큰 상을 받고 체계적인 교육도 받았으니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팀 운영도 지속할 수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창작자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합니다. 갈수록 솜품 등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콘텐츠가 난무하는 시점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는 격주 콘텐츠를 만들면서 미식화성의 활동 반경을 더 넓힐 계획이다. 구성원 개인 콘텐츠도 부지런히 제작할 생각이다. 각자 화성의 학교와 마을 활동가, 몸과 마음의 건강, 육아, 작은 도서관, 먹거리 등 지역을 깊숙이 파고드는 소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하정현 씨는 "당연히 마을 라디오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미소 지었다.



안은정 · 어느새 마을 미디어로 활동한 기간이 1년이 흘렀네요.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팀원 간 존중과 배려가 있었고, 유연한 사고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 등 청취자들이 듣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더 발품 팔아서 구석구석 숨은 화성의 매력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알차고 재미난 콘텐츠로 청취자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식화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성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미식화성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QR코드

화성시미디어센터
'마스TV'

미식화성

ARCHIVE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깃든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54년간 사격 훈련장으로 쓰였던 매항리 농섬. 생명을 캐내며 삶을 일구던 바다에 하루에도 수백 개의 폭탄이 떨어져 폭음과 포성이 끊이지 않았다. 평화와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처절한 싸움이 있었던 매항리에는 아픔이 서려 있지만, 슬픈 과거를 딛고 희망을 품어 앞으로 나아간다.

글 편집실 사진 김주원



매화 향이 불어오는 마을

‘매항리’ 세글자 이름의 유래에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마을 앞 모래 언덕에 매화나무 군락이 있어, 매화 향이 마을로 불어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을 이름을 지을 때 서원과 구장이라는 두 문장가가 매^梅자와 향^香자를 선택하여 마을 이름이 매항리가 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 세 번째 설은 누군가 미륵불을 기다리며 땅에 향을 묻었다는 뜻에서 매향^{梅香}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한자음이 같은 매항리^{梅香里}로 바뀌었다고 하는 설이다. 매항리의 옛 지명은 고온리^{高溫里}로 사람 살기에 좋고 따뜻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미군은 그들의 기지 명칭으로 ‘고온리’를 영문표기한 ‘쿠-니^{Koon-ni}’ 사격장이라고 지었다.



폭격, 포탄의 흔적 고스란히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매항리. 매항리 주민 증언에 따르면,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에 매항리 농섬에 미 공군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농섬은 매항리 앞바다 1.6km 밖에 있는 작은 섬이다. 미군의 폭격은 농섬을 해상 표적으로 삼아 실시한 사격 연습이었다. 평화로운 어촌마을의 바다 생물들과 마을 주민들은 종일 굉음과 폭음에 시달렸다. 여러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1989년부터 훈련 중지를 요구했고 마침내 2005년 8월 12일 사격장이 전면 폐쇄되었다. 매항리 역사기념관 건물 마당에 농섬에서 건져 올린 포탄과 탄피 등 잔해가 즐비하다.



농섬은 철새들의 쉼터가 됐다. © 화성시

철새들의 쉼터, 농섬

매항리 앞바다에는 아픔을 간직한 농섬이 있다. 각종 바다 새의 서식지이자 소나무 군락으로 울창했던 섬은 폭격으로 깎여 섬 일부가 사라졌다. 생명체를 괴롭히던 폭탄 소리가 사라진 지금, 생명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철새들의 주 서식지이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의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해 도요새, 저어새 등 희귀한 철새들의 쉼터가 되어준다. 매항리의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자리 잡았고, 다시금 서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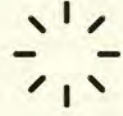


평화를 되찾아 위로와 치유 공간으로

미 공군사령부의 공군사격장으로 사용하던 쿠니사격장 부지는 평화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사격장을 폐쇄했고 아픈 역사를 보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 9월에 공원으로 재단장했다. 잔디 마당, 매항정, 작가정원, 습지생태원, 마을 숲 산책로, 평화기념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22년 4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장소의 메시지를 더욱 길게 전하고 있다. 생태공원 산책로와 함께 서해안의 낭만을 즐기는 바닷가 산책도 할 수 있다. 전쟁의 아픔을 건어낸 매항리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크고 작은 생명이 숨 쉬고 있는 희망의 터전이었다.



• 참고문헌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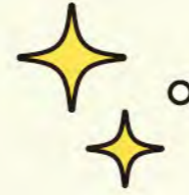
화성인의 대답



어른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데, 아이들의 상상력에 놀랄 때가 있다.
 그러곤 '나도 저렇게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성인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린 시절 호기심 가득했던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
 화성인들은 동심을 아직 가지고 있을지, 자신만의 네버랜드가 궁금해졌다.

화성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동심은 안녕하십니까?”



여상희 | 감사
꿈이 수십 개였던 어린 날의 나

매일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바뀌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어른이 되면 간호사가 되어야지!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야! 가수가 되어야지! 하며 학교에 갔다 오면 매일 꿈이 바뀌었다. 엄마는 매일 매일 새로운 꿈을 꾸는 나를 보며 “좋겠다. 상희는...” 하고 말씀하시곤 했다. 서른여덟 살이 된 지금 여섯 살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는 매일 재미있는 꿈을 꾸며 하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보니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호기심도 많고, 흥도 많고, 눈물도 많았던 어린 날의 내가 어느새 그런 딸을 보살피는 엄마가 되어 가고 있다.

김명은 | 주부
사랑으로 만들려던 음료수

내게는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다. 맛별이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남동생을 돌보았다. 어느 더운 여름날,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고 안 계실 때 동생이 달콤한 음료수가 먹고 싶다고 했다. 돈의 개념도 잘 모르는 어린 누나였던 나는 동생에게 어떻게든 음료수를 주고 싶었다. 음료수가 먹고 싶다면 우는 동생을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집 안 구석에 넣어있던 몇 개의 사탕이 눈에 들어왔다. 동생을 달래며 사탕 몇 개를 손에 쥐고, 살고 있던 다세대 주택 옥상 위로 올라갔다. 돛자리에 고추를 말리듯, 사탕을 햇볕에 녹여서 물에 타서 음료수를 만들어 줄 생각이었다. 동생은 울다 지쳐 잠들고 옥상에 쪼그리고 앉아 사탕이 녹기만을 애태워 기다렸던 어린 누나의 마음이 생각난다. 결국 음료수를 못 만들어줘서 속상한 마음에, 집에 오신 엄마를 보자마자 참 많이 울었다.

양혜민 | 주부
잠들기 전 듣는 동요의 추억들

아이와 함께 전쟁 같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항상 잔잔한 동요나 자장가를 들려준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들었던 장소와 분위기, 그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 날 때가 있다. 아이를 재우며 함께 듣는 동요들은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늘 생각하게 만든다. 흘러나오는 노래 중에는 초등학교 시절 동요대회에 나가려고 열심히 연습했던 동요가 있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가사를 개사해 불렀던 동요, 어린 마음에도 가사가 예뻐 흥얼거리며 공책에 써보던 동요들이 있었다. 그런 동요들을 들으며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잠시나마 그때의 즐거웠던 상상을 하게 된다. 마냥 행복했던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아이와 동요를 들을 때마다 화상할 수 있어 참 다행이다.





박우성 | 회사원
캠핑, 성인용 소꿉놀이

어릴 때부터 뛰어놀고 운동하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여기저기 걸다니는 정적인 놀이를 자주 했다. 어느덧 30대의 절반을 넘어섰고 퇴근 후 가끔 아내와 먹는 술 한 잔과 곁들이는 대화로 사는 재미를 느낀다. 혼자 있는 날에는 콘솔 게임기만 붙잡고 있다. 부부의 취미가 달라서 한 명은 항상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일방적) 합의하고 캠핑을 시작했다. 장비도 사고 놀러 갈 캠핑장도 고른 후 몇 번 다녀보니 깨달았다. 주변에서 비싼 돈 주고 노숙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성인용 소꿉놀이라는 것을. 집을 짓고 침실에 주방을 꾸미면 거실은 캠핑장 전체가 된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하는 소꿉놀이와 같았다. 솔직히 캠핑장에 가면 힘들다. 하룻밤 자고 오면 집 짓느라 들인 고생에 몸이 부서지기도 하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사서 해놓고 집에 와서 짐 정리도 해야 한다.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아늑하고, 따뜻하며 폭신하다. 그 고생에도 다음엔 어디를 갈지 생각한다. 산으로 갈지 호수로 갈지 고민부터 어떤 요리를 먹을까, 집을 어떻게 지을지 즐겁게 고민하면서 짐을 싣다. 가는 길이 힘들지도 않고 도착하면 주변 자연환경을 조망한다. 한여름의 계곡은 시원하고 허리 높이의 물에 들어가서 튜브를 타고 동동 떠 있거나 해도 좋다. 한겨울의 눈 덮인 충주호는 조용하게 눈 밟는 소리만 들려오고, 녹은 눈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뒤꿈치로 얼음을 깨부수는 쾌감이 있다. 고즈넉한 밤에는 나무 장작으로 불장난을 한다. 이번 겨울에는 어디로 소꿉놀이를 가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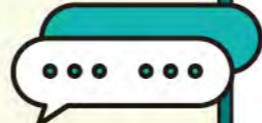
박채아 | 회사원
서른 살이지만 인형은 못 참아

여자아이들이라면 대부분 그렇지만 나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인형을 정말 좋아했다. 특히 나의 애착 인형은 '똥똥이'였다. 자신도 아기면서 아기 인형을 들고 어딜 가든 안고 다녔다. 딸이 좋아하는 건 다 사주시는 아빠 덕에 인형 전용 유모차도 사서 밀고 다니고, 포대기도 싸서 업고 다니기도 했다. 재주 좋은 우리 엄마는 한복까지 만들어주셨다. 성인이 되고도 유아기적 취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어딜 가도 귀여운 인형만 보면 못 참고 구매하곤 한다. '베이비돌'이라는 공주 캐릭터의 두 인형은 결국 내 신혼집까지 따라와 계절마다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다. 심심할 때마다 어떻게 꾸며줄까 고민하고 옷도 직접 만들다 보면 하루가 후딱 간다. 서른 살의 내가 세 살 때의 나보다 더 거창한 인형 놀이를 하게 될 줄이야!



한아름
삐약이는 삐약 삐약

40대인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에게 국민학교 시절 하굣길을 떠올려보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학교 앞에서 파는 노란 병아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나 또한 남동생 손을 잡고 하교하던 길에 한참을 넋을 놓고 병아리를 바라보았다. 병아리 아저씨 눈을 피해 작은 병아리를 쓰다듬고 싶어 손만 꿈지락거리고 있었는데 "만지면 사가야 해"라는 불호령에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하지만 가는 길에도 시선은 병아리에 가 있었다. 동생의 손을 꼭 쥐며 오늘은 엄마한테 병아리 키우고 싶다고 말하기로 다짐했지만 우린 누구보다 잘 안다. 셋방살이하면서 병아리를 키울 공간도 없고 엄마는 동물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다음날도 열심히 '삐약'거리며 우리를 불러대는 병아리들. 한 친구가 의기양양 투명 비닐봉지에 병아리를 담아간다. 그때 무슨 자신감인지 나는 주머니 속 동전을 과감히 내밀었다. 동생이 누나를 부르며 제지하는 손짓에도 나는 아저씨에게 보란 듯이 돈을 내밀었다. 아저씨는 '너도 걸러들었구나' 하는 눈빛으로 봉지에 병아리를 담으시며 "집에 가서 엄마가 물러오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다짐까지 받아냈다. 그때부터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지만, 봉지 속에서 들려오는 '삐약' 소리가 마치 응원가인 듯 용기를 주었다. 집에 가서 엄마는 눈이 커져서 "어쩌자고..." 하시며 조용히 박스로 병아리 집을 만들어주셨다. 그날 저녁 아빠는 "약한 애들이니까 죽으면 다신 키우지 말자"라고만 하시곤 물과 밥 주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친구들 사이에서 병아리 아저씨가 파는 병아리는 며칠 만에 다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 집 삐약이는 크지도 않고 잘 있다고 하니 한 친구가 지금쯤 커야 하고 안 죽은 것도 이상하다며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나는 분하고 답답한 마음에 우리 집에 가보자고 했고 같이 가서 본 친구들도 의아해했다. 진짜 병아리 크기 그대로 삐약이가 살아있으니 말이다. 며칠 뒤 삐약이는 우주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사 온 삐약이는 이틀 만에 죽었고 엄마가 우리 몰래 학교 앞에 가서 병아리를 6번이나 사서 집에 둔 것이다. 지금도 귀엽고 작은 강아지조차 싫어하는 친정엄마가 그 시절 병아리를 투명 봉지에 담아서 오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니 한없이 미안하다. 나와 동생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엄마의 마음이 한없이 고마울 뿐이다.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독자 공모 바로가기



'PEOPLE'은 매호 주제와 관련된 독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글 또는 그림, 사진과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호 독자공모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공지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특별한 선물과 함께 《화분》 지면에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주세요.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HCF NEWS

2023. Winter ~ 2024. Spring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시민참여형 지원사업 열기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은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으로 '다섯수레'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 읽고 귀 기울이고 나눔을 실천하며 성장을 지향하는 '다섯수레'는 현재 8회의 책 모임을 가졌다. 도서관에서는 11월 4일(토) 오전 10시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 프로그램에 김민영 작가를 초청해 '혼자 읽기 vs 함께 읽기', '책 모임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 '다양한 책모임의 사례 및 현장 상황', '규모별·분야별 책모임' 등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이 시간은 독서 모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학습의 장이 되었다.

함께 읽는 독서 모임이 각광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 간 이루어지는 소통 때문일 것이다. 같은 책을 읽어도 저마다 받아들이고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대화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는 독서 문화 활성화의 중심점이 되어 시민참여형 도서관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031-8003-0748

지역예술인과 시민의 합작 2023 화성예술플랫폼 아카이브전 성료

화성시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및 예술가의 작업실을 찾아가 예술가와 시민이 예술로 소통하는 '화성예술플랫폼' 사업이 올해도 아카이브전과 함께 마무리됐다. 본 사업은 화성시 예술가 작업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동시에 예술가에게는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와 예술적 감수성 신장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CAT(Culture&Arts Tour)'으로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작품세계를 경험해보는 오픈스튜디오와 축제, 전시 등 화성시의 문화예술 공간을 방문하는 1일 투어 형식으로 진행됐다.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한 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은 아카이브전 <안녕>으로 11월 8일(수)부터 11월 15일(수)까지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2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재단은 2024년에도 더 다양한 예술가 및 문화공간과 함께 예술로 소통하는 화성예술플랫폼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시민문화팀 031-290-4634

2023 경기 문화자치 활성화사업 '화성랩소디' 성료

재단은 시민이 화성의 노래를 함께 만드는 '화성랩소디'를 운영했다. 화성랩소디는 2023 경기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시의 이야기를 글로 적고, 예술가가 노래로 만들어 지역주민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찍는 시민참여형 사업이다.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던 이번 사업은 지난 8~11월 봉담 숲속보물섬 동일하이빌작은도서관, 발안 문화더함공간서로, 두 곳을 중심으로 3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봉담 지역에서는 '우리가 화성의 중심', 발안 지역에서는 '발안만세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동네사람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민의 노래가 탄생했으며, 전 과정을 통해 완성된 뮤직비디오는 시사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추후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 문화정책기획팀 031-290-4661

화성메세나 아트페어 12월 14일 개막식 진행

시민과 기업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자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된 '화성메세나 아트페어'가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동탄복합문화센터 동탄아트스페이스와 동탄아트스퀘어에서 열린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30명이 공모로 선발되었고, 초대작가로 윤석남과 전덕제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윤석남 작가는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 대표작가로 40년 동안 화성시에 작업실을 두고 세계 유명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아트페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화성시의 '메세나 아트페어 시스템' 정착을 목적으로, 시민의 예술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내 기업과 문화예술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메세나 아트페어를 통한 작품 판매 금액의 40%를 '화성시민 문화기금'으로 적립해 화성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정책기획팀 031-290-4662

**ESG와 메세나의 결합
'화성ESG메세나' 3차 워크숍 성료**

2023 경기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고자 화성 <ESG+메세나> 워크숍이 펼쳐졌다. 워크숍은 2달 동안 총 3차례가 열렸고 지난 11월 16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1차는 '화성시 <ESG+메세나> 방안'으로 손예령 교수(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의 특강을 통해 포스코 등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과 ESG의 연계방안을 살폈다. 2차는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으로 강충호 교수(아주대 융합ESG학과)와 함께 화성에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3차는 '사회혁신금융과 민간기금 조성'을 주제로 화성에서 지속가능한 민간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워크숍의 성과로 12월 6일에는 '화성ESG메세나'라는 네트워크의 창립포럼과 창립식을 통해 향후 화성에서의 'ESG+메세나'의 실천이 계획돼 있다.



문의 : 문화정책기획팀 031-290-4662

**미디어로 꽃 피운 마을 이야기
2023 시민미디어제작단 성과공유회 성료**

화성시미디어센터가 진행한 '2023 마을미디어활동가 양성과정'이 올해도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사업에는 영상 분야의 7개 팀, 라디오 분야의 3개 팀, 총 10개의 단체가 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과정 중 제5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에서 영상 분야 '선택과 연결'이 우수활동상(경기콘텐츠진흥원장상), 라디오 분야 '미식화성'이 신인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1월 24일(금) 화성시미디어센터에서는 2023 시민미디어제작단 10개 단체가 모여 성과공유회 '화성, 미디어에 담다'를 개최했다. 라디오 분야 참여자들이 직접 진행해 꾸미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 미디어 활동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 이후에도 제작 영상들은 일주일간 1층 미디어갤러리에서 상영되며, 토요일 방바닥극장 정시 상영 전에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화성시미디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마스TV'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문의 : 미디어팀 031-8003-6463

**화성시미디어센터 학교 연계 프로젝트
'이웃, 안부를 묻다' 성료**

화성시미디어센터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연계 프로젝트 '이웃, 안부를 묻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화성시, 화성시미디어센터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만들어진 물리적, 심적 경계를 허물고 직접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이웃의 안부를 묻고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산중학교 9명, 이산고등학교 학생 6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사 작성법, 영상 편집, 스케치 등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받은 후,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웃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또래 학생, 카페 사장, 노인 회장, 독립책방 사장 등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 소통하고 공감했다. 프로젝트 과정은 12월 중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지며, 화성시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추후 인터뷰 촬영 영상의 일부도 화성시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 미디어팀 031-8015-2735

**함께 맞이하는 청룡의 해
송년 제야행사**

100만 화성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시민이 함께 2024년 갑진년(청룡의 해)을 맞이하는 송년 제야 행사가 12월 31일 개최된다. 태안3지구 내 정조효공원 및 용주사에서 오후 9시부터 행사를 진행한다. 정조효공원에서는 화성시 예술인들의 공연부터 대중가수 초청 공연까지 누구나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연다. 이어 2024년 신년 인사와 100만 화성시민들이 새해 소망을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송년 제야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2024년을 함께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이다. 용주사에서는 새해가 밝았음을 알리는 타종식을 선보이며, 정조효공원에서도 생중계되어 짜릿한 순간을 공유하게 된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 정조효공원에서는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추위를 잊고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더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축제1팀 031-290-4619

화성시 예술인을 위한 더 커진 예술지원
2024 화성시문화재단 예술활동 지원사업 통합공모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는 2024년 지속가능한 화성시의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공모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은 지원 내용에 따라 화성시 예술인의 전문 예술 활동 리서치 과정을 지원하는 '신진 예술활동 지원' 사업, 화성시 전문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화성 예술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매칭 사업으로 화성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소규모 예술 활동 지원 사업 '경기예술활동지원 모 든예술 31'까지 총 세 건이다. 예술 지원사업은 지역예술 창조 역량 강화 및 지역 예술활동 지속 활성화를 통한 시민 향유 기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1월 공모사업 공고를 거쳐 3월에 예술인(단체)을 선정하며, 선정된 예술인(단체)은 2024년 11월까지 화성시 내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공연·시각·문학 등 전 분야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기준 화성시에 소재지(거주지)를 두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이다. 단, '모든 예술31'의 경우 화성시 등 경기도 소재 요건이다. 2024년도 화성시문화재단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통합 지원 목표는 전년 대비 31.25% 증가한 105건, 지원 금액은 총 6억 4,950만 원이다. 개별 지원 신청 가능 금액은 세부 사업별, 장르별로 상이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심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세부 공모 요강은 추후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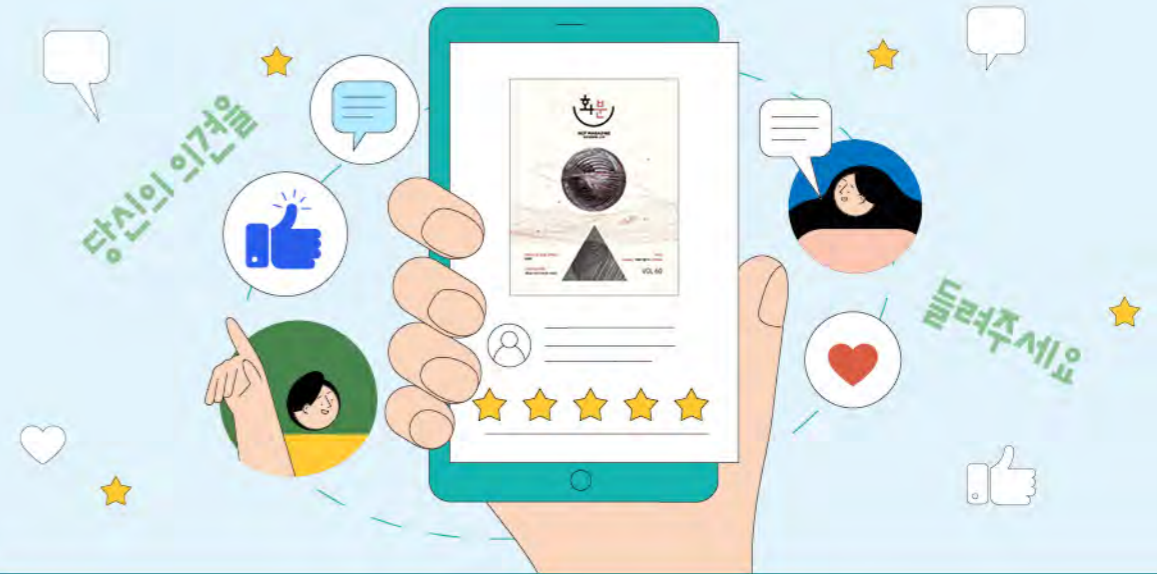


문의 :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2~4

2023

화성시문화재단 《화분》

독자 만족도 조사



올 한 해도 《화분》에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독자와 함께하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겨주신 모든 의견을 취합 후 분석하여

앞으로 제작되는 《화분》 기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늘 독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장하는 《화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2023 화분
만족도 조사 QR코드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후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
설문조사 URL <https://forms.gle/YkskRqbDGnqYwZKLA>

설문기간 2023년 12월 10일 ~ 2024년 1월 10일

설문내용 콘텐츠 내용, 디자인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당첨발표 2024년 1월 15일 (당첨자 개별 연락)

※ 당첨되신 분들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드릴 예정입니다.
설문 제출 시 정확한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셨는지 확인 바랍니다.

LETTER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양양도서관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좋지 않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각 분야의 별칭이 포함된 2023년 2월 화분은 FOCUS 피쳐가 좋았다. 전적으로 서적추천 시는 각 분야의 별칭 피쳐에서 잘 정리 되어 있으며 또 다양한 추천 도서도 소개했다.
 화성시 서 많이 알려져 있는 양지근 가리 함께 보, 듣고, 읽을 수 있는 (다른 언어) 피쳐가 새겨 소개된 도서도 소개했다.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화성시와 관련된 별칭이 소개된 도서에 대해 번역해주시는 것이 많이 적어지면 좋겠다. 화성시와 관련된 도서도 소개해주시고

RE: 편집부 지역의 숨은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더 발로 뛰는 편집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두빛나래 도서관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좋지 않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1. FOCUS 피쳐, 명분까지 길게 열었다. 2. 23년 2월 화분은 - 각 분야의 별칭과 추천도서 및 내내까지 좋은 정보였습니다.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맛집을 많이 소개해주세요.
 양양도서관, 양양문화집, 전 양양 어린이도서관 등을 소개해주세요. 양양과 같은 지역을 소개해주세요.
 5.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항상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바쁘게 감사합니다.

RE: 편집부 화성 축제와 행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응원 감사합니다!

화성을 그리다 참여 작품



※ 뒷면의 컬러링 페이지를 색칠한 후 사진을 보내주세요!



윤이숙 님



이부용 님



이효빈 님



임열 님



장효정 님



최현지 님



HCF MAGAZINE 2023
 겨울과 봄 사이 VOL.61

PLACE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 031-8015-8112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 동탄복합문화센터
- 화성시미디어센터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화성3.1운동만세길방문자센터
- 화성아트홀
- 반석아트홀
- 누림아트홀
-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

도서관

- 남양도서관
- 동탄다원아파트도서관
- 동탄목동아파트도서관
-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 동탄중앙아파트도서관
- 왕배푸른숲도서관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달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 병점도서관
- 삼괴도서관
- 서연아파트도서관
- 송산도서관
- 송림아파트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 태안도서관
- 노을빛도서관

작은도서관

- 샘내작은도서관
- 기아행복마루도서관
- 비봉작은도서관
- 마도작은도서관
- 팔탄작은도서관
- 양감작은도서관
- 호수나래작은도서관

문화시설

- 노작홍사용문학관
- 화성ICT생활문화센터
- 모두누림센터
- 유엔아이센터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 소다미술관
- 엄미술관

카페

- 다락
- 다윈
- 달팽이그림책카페

- 손커피연구소
- 차마시는뜰
- 카페오카페
- 카페 라온트리

호텔

- 라비돌리조트
- 푸르미르호텔

기타

- 독립서점 모모책방
- 갤러리문화아트지트
- 신자연주의공방
- 공방 7보다
- 동탄제로웨이스트샵 세바른상점
- 서울건치과

온라인 구독 웹진 <화분>
 hwaboon.hcf.or.kr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료지입니다. 배송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웹진 내 구독 신청 또는 편집부로 문의 바랍니다.

甲辰年

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밝아오는 새해,
늘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독자엽서를 선에 맞춰 잘라주세요
2. 주소 및 연락처, 설문내용을 작성해주세요
3. 점선표시에 맞춰 엽서를 접어주세요
4. 엽서를 접은 상태에서 접착되는 면을 아래로 내려서 풀 또는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접어주세요

접하는 곳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22.4.22-2024.4.21

화성동탄우체국
제40056호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화분>담당자

1 8 4 5 9

접어주세요



플 또는 타이프로 고정에 주세요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교양지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업서로 보내주신 내용은 더 좋은 《화분》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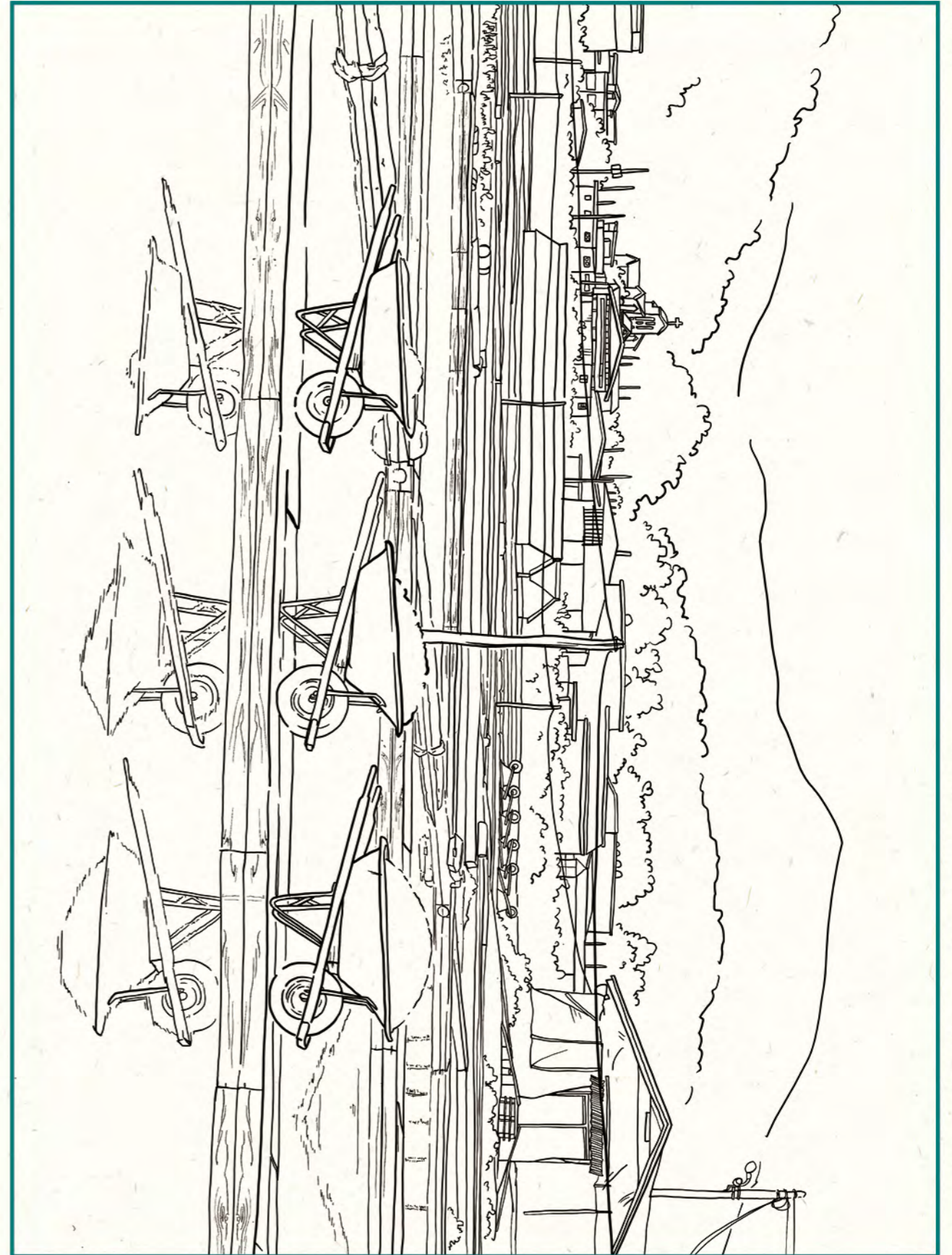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5.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나만의 상상력으로 색을 채운 후 2024년 1월 5일까지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기재 필수) 보내실 곳 : hcfnewsletter@naver.com

화성시문화재단이 100만 화성 달성을 기원합니다.

화성시가 재정건전성과 배양하여 마비된 친환경 1000지혜사 영입합니다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화성시문화재단



청정 후 세상